

발간사

『동아연구』 제50집 발간에 즈음하여

최진석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장

동아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란 지역의 모든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1981년 창립된 이래 의욕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여러 전임 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 유지 되어 왔다.

전해종 초대 소장님과 이상우 제2대 소장님은 연구소를 수준 높은 시야 속에서 설립하시고 넓고 깊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여 주셨으며, 이태욱 제3대 소장님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주력하셨으며, 제4, 5, 6대의 박상태, 김수용, 정인재 소장님들은 동아연구소의 연구 주제와 지역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다양화하면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해주셨다. 제7대 신윤희 소장님은 학술진흥재단의 대형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동아연구소의 연구 역량이 공인될 수 있도록 튼튼한 발걸음을 내 디으셨다. 특히 『동아연구』를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올려놓는 큰 실적을 이루셨는데, 이는 동아연구소와 『동아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지만 쉽지 않았던 일을 해내신 것이었다.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학자들이 21세기를 ‘동아시아의 세기’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

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와 정치 및 문화의 흐름이 이제 장기간의 고립과 수동성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세계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해진 것만은 이미 사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발전적 변화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주동성을 더욱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다. 동아연구소가 지금까지 해 온 연구의 흐름과 내용은 이미 '동아시아의 세기'를 맞이할 우리의 사명과 방법을 충분히 일깨워 주었다. 동아연구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아연구소와 관련된 우리 모두는 연구 열정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동아연구소의 창립과 함께 창간되었던 『동아연구』의 출간이 제50집을 넘어서게 되었다. 국내의 대학 연구소가 갖는 열악한 재정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50집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임 소장님들과 교내 유관 교수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임 소장님들과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축제의 분위기에 잠겨 있기에는 사명이 너무 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아는 작은 일들도 아직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했다. 『동아연구』 제50호 출간을 바라보면서, 이미 적지 않은 일들을 해주신 전임 소장님들과 많은 연구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고, 미래에 대한 무거운 사명을 새기면서 깊지만 조용하게 자축해본다. 『동아연구』는 서강대학교의 자랑이다.